

한화그룹, 사상 최대 규모 방산수출

# 한화시스템, K-방산산업 글로벌화... '천궁-II MFR' 수출

(다기능레이다)

UAE와 1조 3000억 규모 계약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 공급  
중동·동남아 시장 진출 모색



한화시스템이 개발 및 양산한 천궁-II 다기능레이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열에 합류한다.

한화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I I(MSAM-II,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로 사상 최대의 수출 쾌거를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졌다.

천궁으로 더 잘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다. 한화시스템은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센서인 MFR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2020년 전력화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천궁 MFR 성능 개량형(천궁-II MFR)을 양산 및 공

급할 예정이다. 천궁-II MFR은 기존의 천궁 MFR을 성능개량해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탐지 ▲추적 ▲식별 ▲

재미 대응 ▲유도탄 포착·추적·교신 등 교전기능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천궁-II MFR을 UAE의 환경조건에 맞게 개량 후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에 확보된 개량형 수출 모델로 향후 중동·동남아 수출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 레이더 기술을 한번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레이더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역량 입증과 함께, 방산 수출의 새 역사를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쓰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UAE 수출 성공을 위한 정부·군·방사청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세일즈의 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2021년도 한해 약 2조2800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주 잔고는 금번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의 UAE 수출을 포함해 약 5조 800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레이다(MFR) 개발 ▲방공지휘통제체계(ADC2A) 양산 ▲항공전력용 피아식별장비(IFF) 모드 5 성능개량 사업 등 R&D 역량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수주 잔고를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한화디펜스, 수출 신기록 행진... 호주·UAE 5兆 공급 계약

연 국가 최초 호주에 무기체계 수출  
기술 경쟁력 앞세워 글로벌 공략

한화디펜스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7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등 1조원이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수출의 새 이정표를 세운데 이어 16일(중동 현지시간)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의 발사대를 3900억원대에 계약했다. 한화시스템은 '천궁-II'의 다기능레이다를 1조원 넘게 계약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UAE에 수출하는 천궁-II 전체 계약 금액은 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방산장비의 해외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한화디펜스가 발사대와 적재·수송 차량을, 한화시스템이 레이더 체계를 제작하고, 이를 공급받은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맡아 최종 UAE 공군에 전달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궁-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여 2018년 생산에 착수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높은 발사대가 필수적이다. 한화디펜스는 각종 육상용 발사체계뿐만 아니라 해상용 발사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발사대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천궁 발사대 외에도 현무 미사일 발사대, 해군의 청상어(어뢰) 발사대와 해상(함대함 유도무기) 발사대, 다종의 함정발사 유도탄을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등을 개발했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13일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는 계약

을 체결했다. 이는 K9 자주포를 'Five Eyes'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대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디펜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시설을 건립해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한-호주 방산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이번 UAE 수출 계약은 우리 정부와 여러 방산기업들이 모두 한 팀으로 합심



한화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한화디펜스

하여 이뤄낸 뜻 깊은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동안 수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과연, 방사청, 군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디펜스는 이번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UAE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한편, 레드백과 K9 자주포 수출에도 최선을 다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 서울반도체 '썬라이크' 근시개선 입증

서울반도체는 썬라이크 조명 사용자 근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싱가포르 안과 연구소 '세리(SERI)'와 함께 자연광 조명기근시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했다. 자연광 조명 기술 썬라이크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험은 인간의 눈과 유사한 병아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각 다른 조명을 쬐어준 후 근시 발생 원인인 안구의 길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한쪽 눈에는 근시를 유도하고 가림막 제거 후 1그룹에는 일반 형광등(4000K)을, 2그룹과 3그룹에는 각각 조도(4000K, 6500K)가 다른 썬라이크 조명을 비쬐었다. 그 결과 형광등 조명군의 병아리는 지속적으로 안구의 길이가 길어져 근시가 발전했으며, 썬라이크 조명군의 병아리는 일반 정상 안구의 크기로 회복됐다.

/김재욱 기자 juk@

### LG U+, 데이터·콘텐츠 신사업 본격화

美 AT&T 출신 황규별 CDO 선임

LG유플러스가 올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과 함께 중점 추진 신사업으로 데이터 사업을 육성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년사에서 데이터·광고·콘텐츠 사업과 방안을 위해 인재와 역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CDO(최고데이터책임자)로 황규별 전무를 선임했다.

황 CDO는 미국 델타항공에서 CRM(고객관리시스템) 분석 업무를 시작으로, 다이렉TV(DirecTV) 비즈니스 분석 수석이사, AT&T 콘텐츠인텔리전스1·빅데이터 책임자, 워너미디어 상품·데이터플랫폼·데이터수익화 담당 임원을 역임한 데이터 사업 전문가다.

LG유플러스는 황 CDO의 미국 주요 통신·미디어기업에서의 경험과 전문역



량에 주목했다. 황 CDO는 데이터사업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의 AI, 빅데이터, 전자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활동을 이끌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올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디지털 경험에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AI와 빅데이터를 확산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와 유샵(U+Shop) 등 디지털채널에서 단말, 요금제, 프로모션 등을 개인맞춤형으로 제안하고 챗봇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비통신산업과의 데이터제휴를 통한 시너지 발굴, 다양한 데이터 사업 진출을 통한 고객가치 확장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신·비통신 영역에서 고객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 SK&C 'AI 뇌출혈 판독 솔루션' 의료현장 적용

평창의료원에 자체개발 솔루션 적용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에 SK(주)C&C의 인공지능(AI)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초를 다투는 뇌졸중 응급 치료의 골든 타임을 지키며 군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SK(주)C&C가 17일 평창군보건의료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뇌출혈 판독 솔루션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 적용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

혔다.

이날 협약식은 SK(주)C&C 윤동준 H healthcare 그룹장과 한왕기 평창군수, 장재석 평창군보건의료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주)C&C가 자체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뇌출혈 판독 솔루션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뇌 CT영상을 수 초 내로 분석해 97% 이상 정확도로 출혈 위치와 이상 여부를 의료진에게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채윤정 기자

### 아시아나항공 4월 3일 하와이 운항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4월 3일부터 하와이 운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점진적으로 증가

는 여행 수요 추세에 맞춰 하와이 노선 운항을 주 3회로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비운항 조치 이후 2년 만의 재운항이다.

/양성운 기자